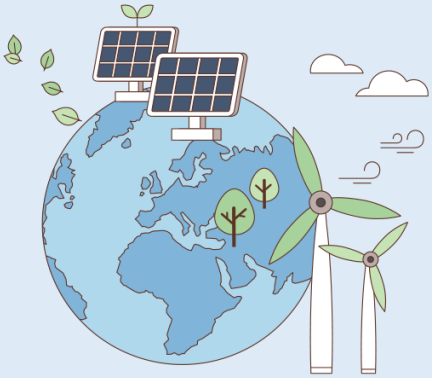
유진투자증권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 02)368-6145_ 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美의회, 석유 공룡들에 기후변화 책임 집중 추궁 *이데일리*
- 국내 온실가스 64%, 11대 그룹서 나온다 *경향신문*
- 한국남부발전, 세계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한국일보*
- SK지오센트릭, ESG행보…3배 비싼 '친환경 나프타' 도입 *한국경제*
- 서부발전, 폐플라스틱 수소화로 탄소중립 '선도' *국민일보*
-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ESG경영 강화하는 항공업계 *이데일리*
- CJ제일제당 `시스테인`, 미국 비건 인증 획득 *디지털타임스*
-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 도약" *파이낸셜뉴스*
- 100만명 찾은 상하농원…ESG로 진화한 농업의 미래 *매일경제*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KT 먹통 사태 속 진짜 의문 "피해 막심한데, 왜 플랜B 없나요?" *이코노미스트*
- 최태원 SK 회장 "미래 유망사업에 청년 2만7000명 뽑는다" *뉴시스*
- "韓, 파업인한 근로손실 年 38.7일…대체근로 허용·직장 점거 막아야" *한국경제*
- 공정위, 카카오 이어 농협 '금산분리 위반' 의심…대기업 '꼼수' 채무보증도 살핀다 *서울경제*
- 파업 리스크 벗어난 현대제철… 임금협상 타결 마무리 *머니S*
- 갑질 논란에 앱 수수료 낮춘 구글…구독경제 확산되나? *이코노미스트*
- 국내 100대 기업 女임원 300명 돌파…삼성전자 55명 최다 *뉴시스*
- 소상공인 80만곳 손실보상 2조4000억 27일부터 지급 *파이낸셜뉴스*
- 좀비 기업 40% 역대 최대…코로나 직격탄에 이자도 못갚아 *이코노미스트*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위메이드, 블록체인 자회사 합병…'돈버는게임'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 가구업계 1위 한샘, 사모펀드 IMM PE에 팔렸다 *한국일보*
- '깜짝인사' 낸 구광모…'LG그룹 2인자' 포스트 권영수는 누구? *아이뉴스24*
- 포스코케미칼, 유럽 시장 공략… 노르웨이 배터리社와 협약 *파이낸셜뉴스*
- "뜨거워진 면세점 입찰 경쟁" 김포공항서 '빅3' 격돌…이번주 선정 *아시아경제*
- 왜 기업합병과 분할은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가…"의결권 제한해야" *경향신문*
- 제주항공, 유상증자 성공적 마무리…운영자금 2066억원 확보 *노컷뉴스*
- SK케미칼, 유틸리티 공급 분사… 법인신설 LNG 열병합 발전사업 *디지털타임스*
-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로 1조2825억원 확보 *데일리안*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중국·인도, 탄소 감축목표 제출 거부…기후협약 난항 *서울경제*
- 바이든 기후변화 예산 사수…"역대 가장 중요한 투자" 자부 *매일경제*
- 세계 기후변화 기술 스타트업 투자액 올해만 37조원…5년새 5배로 *디지털타임스*
- KCGS "국내기업 60% ESG 개선 필요" *서울경제*
- 1경원 굴리는 블랙록, 韓 ESG투자 속도 *매일경제*
- ESG 펀드에 올 상반기에만 381조원 몰려… 글로벌 투자기준 바꿔 *조선일보*
- 유럽 투자 큰손 EIB...석유 및 가스 회사 대출 사실상 차단 *서울경제*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성·객관성 높인다 *더벨*
- 탄소배출권 이어 기후변화 ETF 6종 상장…첫날 1%대 하락 *매일경제*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A

한국 기업의 ESG 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 국회예산정책처 21.10.27

-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상위 10개국의 기업들 중에서,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Sustainalytics가 ESG점수와 등급을 제시한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함(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 Sustainalytics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를 설계함. 위험노출수준 대비 관리수준의 비율을 백분율로 전환하여 비교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기업들 사이의 상대적 역량을 비교
- 동 지수는 전체 위험노출수준 중 관리수준의 비율로서, 해당 값이 높으면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이 우수하다고 해석 가능
- 아시아 기업들과 북미 기업들의 경우, 그 평균이 유럽 기업들의 평균에 비해 낮고 확률밀도함수의 오른쪽 꼬리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이 대체적으로 낮은 가운데, 일부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높은 ESG위험 관리역량을 축적하였기 때문임. 유럽 기업들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형태로 나타남
- **한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의 평균값이 주요국 평균값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평균은 21.8%로서 경제규모 상위 10개국 중 9위이며, 프랑스(42.53%)가 가장 높고 중국(20.43%)이 가장 낮으며, 미국은 28.25%임**
-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한국과 상대우위에 있는 나머지 8개국과의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ESG경영 측면에서 후발주자인 동북아시아 3개국(일본, 한국, 중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가 60%를 넘는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음**
- 해당국 기업의 최고 수준은, 일본(58.9%), 한국(58.4%), 중국(57.3%)임
- 유럽 기업들이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이 주요국 경쟁기업들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격차가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E

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0.25

- **EU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2050년까지 완전한 기후적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21년 2월 '신 EU 기후적응 전략'을 발표함**
-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완화는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없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
- 기후변화 적응은 1) 미래 인적, 자연적, 물적 손실 회피, 2) 생산성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창출, 3) 사회, 환경, 문화적 혜택 등 3가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필수적임
- **한편 기후변화 완화는 2017~18년 글로벌 기후금융의 93%(연평균 5,370억달러)를 차지했으나, 기후변화 적응은 5% 수준으로 저조함**
- 이에 EU는 동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최근 EU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후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EU에 따르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역내 경제적 손실은 이미 연간 120억 유로 이상으로, 상업화 이전 대비 섭씨 3도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연간 1,7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EU는 기후변화의 연쇄효과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생태계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행동을 강화할 계획임. 파트너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및 NDC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역내 기금, GCF, Adaptation Fund 등 국제기금 활용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금융 확산 및 민간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
- EU는 동 전략이 건축, 생태계, 식품, 산업(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의 분야별 정책과 긴밀이 협력하여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임
- EIB(European Investment Bank)도 2020년 11월 발표한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에서 EU의 기후은행으로서 기후적응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

E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 21.10.27

- 'Fit for 55'는 EU가 203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량의 5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정책 패키지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제시
- EU는 역내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담 공유, EU의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2025년까지 3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과도기에는 탄소국경세를 징수하지는 않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
- 미국 역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의 도입을 추진 중임. 2021년 7월 19일 미국 민주당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철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국경탄소조정 법안을 발의함
- 입법안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경탄소조정을 통해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은 역내 수입업자에 대한 CBAM 인증서 매입 의무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EU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 등 5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 인증서; 매입 의무 부과
- CBAM 인증서 가격은 EU-ETS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시행 시점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의해 결정됨.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 매입 후, 한국 ETS의 탄소가격을 제시하여 가격차이 만큼 환급받으므로, EU-ETS와 한국 ETS 탄소가격 차이를 탄소국경세 부담으로 추정
- 2021년 8월 31일 기준, EU-ETS 탄소배출권 가격은 83,727원(60.7유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KAU지표배출권 가격은 20.700원으로, 63,027원의 가격차가 있고, WCI(캘리포니아, 27,131원)과 한국 배출권 가격차이는 6,431원
- **위 배출권 가격차이를 2017~2019년 평균물량을 기준으로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알루미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부문에 적용할 경우, 대 EU 2,846.7억원, 대 미국 338.2억원 등 총 3,184.9억 원의 탄소국경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의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탄속국경조정 정책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1.10.25

-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에는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으로서 식단변화를 통한 식생활 개선내용이 포함되면서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등 동물성단백질 대체 가공식품(이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대체육'이라 불리우는 가공식품들은 신선식품인 식육의 모양, 질감, 맛을 유사하게 만든 가공식품으로 대체식품 중 하나임. 대체식품은 동물성단백질을 대체한 가공식품류를 말하며 단백질을 추출한 비동물성 식용 원료에 따라 분류함
- 대체식품산업은 곡물을 원료로 한 식물성단백질 유래 가공식품에서 최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원료와 그 제품이 고급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임. 이는 경쟁력 있는 대체재를 찾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면서 공급량과 가격의 안정성 확보, 환경부하 최소화 및 동물복지 등 윤리성과 건전성을 갖춘 식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세계 대체식품산업 규모는 2015년 35억 7,500만 달러에서 2020년 50억 4,800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9.5%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국내도 단백질 원료들이 건강유지 및 근육발달을 위한 목적의 단백질 보충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국내 단백질보충식품산업 규모는 2018년 800억 원에서 2020년 2,500억 원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사용되는 규모는 2020년 1.7%(8위)에 불과하지만 2019년 637억 원에서 2020년 822억 원(전년 대비 29.0% 증가)으로 증가함
- 한편 타 대체식품과 다른 식품유형인 배양육은 세포배양액의 안전성, 식품유형, 관리체계, 표시규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산업화하는 데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푸드테크 기업들은 세포배양 액체배지 영양성분과 성장인자인 동물성 혈청을 대체할 비동물성 성분 연구, 3D 프린터를 이용해 고기조직을 인쇄하는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주요 축산기업들도 배양육 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 2020년 싱가포르의 세계 최초 닭고기 배양육 상업화 승인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대체 식품기업인 '비욘드미트', '임파서블푸드'의 대체식품 판매 증가로 이어져 그동안 연구개발 단계였던 대체식품들이 소비자들의 대안적인 선택을 받아 시장성도 인정받고 있음
- **미래 단백질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대체재 연구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식품산업계,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대체육'이라는 용어 사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축산업계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대체식품산업은 푸드테크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할 전망임**

E

스코프 3(Scope 3)로 넓혀져 가는 탄소 발자국 지우기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1.10.27

- 기업의 탄소 배출은 그 성격과 측정 범위에 따라 스코프(Scope, 유효 범위) 1, 2, 3으로 구분함
- **스코프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스코프3은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 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을 의미함**
-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스코프 3까지 범주를 확장해 장기 전략을 수립하며 협력 업체에도 준수 압박. 금융권에서도 세계 온실가스 회계보고기준을 발표하며 단계적으로 스코프3 범주까지 적용해 보고하도록 권고함
- **스코프3를 위해 제품 주기 전체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을 측정하는 전생애주기평가(LCA) 기법을 도입**
- 전생애주기평가 도입으로 논란이 야기되는 분야는 물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길 전망임
- LCA 측면에서 보면 발전 에너지 믹스 차이로 국가마다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크게 다를 수 있음. 재생에너지를 단기간 크게 늘리기 어려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기간 하이브리드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원가, 경량화, 강도, 내구성 등에서 경쟁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복합소재 사이에서도 LCA가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등장하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
- LCA 탄소 규제를 도입할 경우 그동안 소홀히 여기던 제품 폐기와 재활용 분야도 중요 문제로 부상하며 새로운 리스크 대두는 물론 새로운 산업도 성장할 전망
- 산업계와 금융계 모두 탄소 배출의 정의와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에 유의해야함. 대비가 미진한 기업들은 가치사슬과 생애주기 전체 관점에서 적극적인 체계 수립과 투자 분석이 필요함
- LCA 탄소 배출 측면에서 보면 산업 전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분석 시 LCA 관점에서 접근하는 넓은 시야와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 **탄소 규제가 LCA관점으로 강화되고 확장되면서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산업은 물론 각종 폐기, 재활용, 물류, 플랫폼 산업 등이 부상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해 투자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E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 자본시장연구원 21.10.28

- 탄소가격제는 두 방식으로 가능함. 하나는 국가가 사회적 한계비용을 추정해서 전기 가격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임
- **탄소세는 정책수단이 단위당 탄소세(가격변수)이므로 가격 확실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정책수단이 수량변수이므로 배출량 확실성을 추구하는 정책임**
- 두 제도 간 경쟁에서 최근에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탄소가격은 10달러 내에서 100달러 이상까지 상당한 편차가 확인되고 있고, 커버리지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한국이 70% 이상으로 높고 EU ETS는 40%대임**
- 재정수입이 많은 나라는 EU ETS, 프랑스 등이 확인됨. 2021년부터 탄소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따라 글로벌 탄소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임
- 수량조정의 배출권거래제와 가격조정의 탄소세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많은 보완적 제도이기 때문에 IPCC 등 국제기구도 어느 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음. 그럼에도 EU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최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까지 전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음
- **이는 1) 수량목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량 목표 중심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직접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임. 탄소세의 경우 감축량이 아닌 가격을 정책목표로 삼기 때문에 탄소량 감축량이 불확실함**
- 2)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동일한 재정수입 효과를 큰 조세저항 없이 기대할 수 있음. 배출권거래제 역시 허용배출량(permit)을 할당대상 기업에게 무상으로 할당하지 않고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할 경우 탄소세와 동일하게 재정수입이 발생하고 활용이 가능함
- 이 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이 있음. 탄소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장기투자 성격의 할당기업의 탄소중립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발전할 경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시장과 유통시장의 혁신이 필요함. 할당시장은 선형감축계수 등 탄소중립 국가감축목표(NDC)와의 직접 연계를 제도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을 통해 마련된 재정수입으로 에너지전환 마중물 투자와 피해계층 보상 등 전환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바, 최저경매가격제 등 시장 하방안정화장치의 도입을 권고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F I W First Trust Water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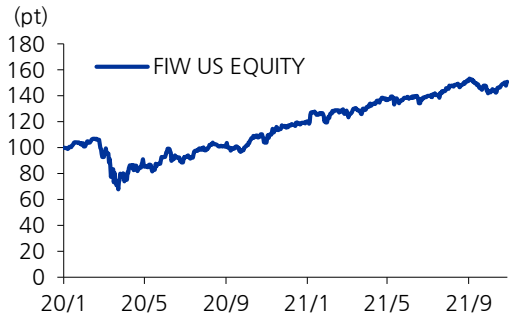
- 미국 상장 기업 중 매출 상당 부분이 식수 또는 폐수처리 산업에서 발생하는 종목 대상
-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50만 달러 이상, 유동주식비율 20% 이상 종목 대상
-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시가 총액 상위 36개 기업을 선정
- 상위 1-10위 종목: 4%, 11-15위: 3.5%, 16-20위: 3.0%, 21-30위: 2.0% 이외 종목들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비중 결정

ETF 개요

티커	FIW US EQUITY
상장일	2007-05-11
운용사명	First Trust ETFs/USA
총보수율(%)	0.54
기초지수	ISE Clean Edge Water Index
가중 방식	Modified Equal Weight
주당 가격(달러)	90.46
보유종목 수	38
시가총액(백만달러)	1,434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U.S.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29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1Y)
수익률	1.4	4.9	4.8	25.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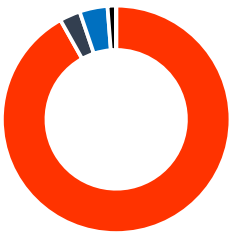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 월 29 일 기준
주 : 2019.12.31 종가=100 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TTEK US	Tetra Tech Inc	9,498	4.2
ROP US	Roper Technologies Inc	51,433	4.0
IEX US	IDEX Corp	16,922	3.9
IDXX US	IDEXX Laboratories Inc	56,672	3.9
ECL US	Ecolab Inc	63,681	3.9
DHR US	Danaher Corp	222,784	3.8
PNR US	Pentair PLC	12,240	3.8
XYL US	Xylem Inc/NY	23,527	3.8
AWK US	American Water Works	31,613	3.8
WTRG US	Essential Utilities Inc	11,568	3.8
합계			39.1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 월 29 일 기준

국가 구성



국가	비중(%)
U.S.	88.3
Canada	2.8
U.K.	3.8
Brazil	1.2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 월 29 일 기준

섹터 구성

섹터	비중(%)
Industrial	61.4
Utilities	21.1
Consumer, Non-cyclical	9.5
Technology	4.0
Basic Materials	3.9
Government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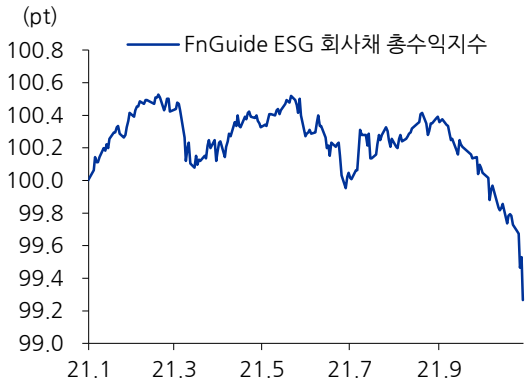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 월 29 일 기준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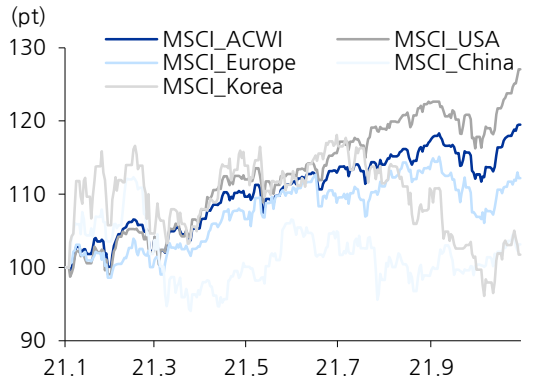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 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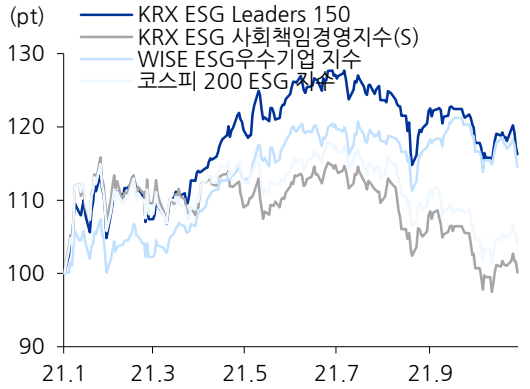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 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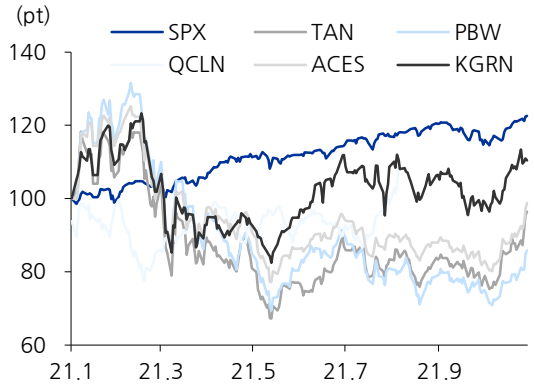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 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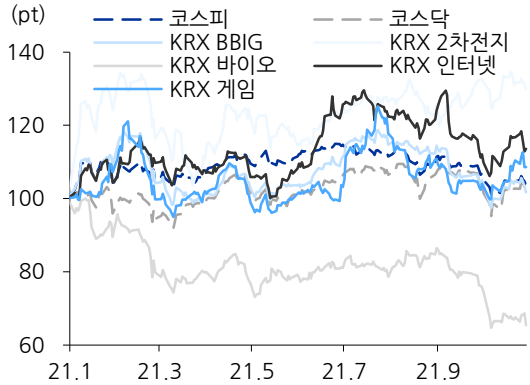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 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 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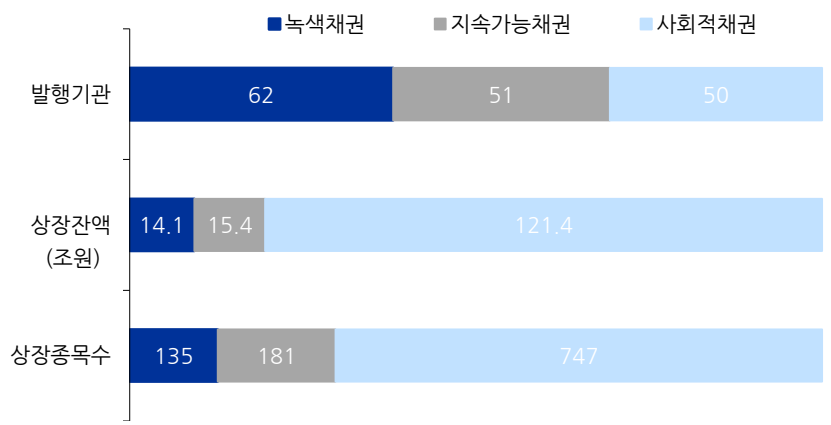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 2020.12.31 종가=100 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19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10/29	2.46100	278,488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20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10/29	2.46100	167,175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21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10/29	2.27300	113,494
녹색채권	동원시스템즈 27-2(녹)	2021/10/28	3.05800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1)(사)	2021/10/28	1.47100	186,9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2)(사)	2021/10/28	1.86900	19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3)(사)	2021/10/28	2.09000	2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4)(사)	2021/10/28	2.41200	59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5)(사)	2021/10/28	2.59800	2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6)(사)	2021/10/28	2.65900	16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7)(사)	2021/10/28	2.64300	1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8)(사)	2021/10/28	2.56700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3(1-9)(사)	2021/10/28	2.53200	1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3(사)	2021/10/28	2.43700	6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4(사)	2021/10/27	2.31700	140,000
녹색채권	우리종합금융 1-1(녹)	2021/10/26	2.52100	2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2(사)	2021/10/26	3.17000	30,000
사회적채권	토지주택채권 404(사)	2021/10/25	2.03400	100,000
사회적채권	토지주택채권 405(사)	2021/10/25	2.30800	190,000
사회적채권	토지주택채권 406(사)	2021/10/25	2.36900	150,000
사회적채권	케이비국민카드 339-1(사)	2021/10/25	1.97900	40,000
사회적채권	케이비국민카드 339-2(사)	2021/10/25	2.16200	20,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